

## 북한의 아동 양육 실태 및 관련 변수<sup>1)</sup>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ild Rearing Practices of North Korea

이 순 형\*  
Yi, Soon Hyung  
이 기 춘\*\*  
Rhee, Kee Choon  
이 기 영\*\*  
Lee, Ki Young  
이 은 영\*\*\*  
Rhee, Eun Young  
김 대 년\*\*\*\*  
Kim, Dae Nyun  
박 영 숙\*\*\*\*\*  
Park, Young Sook  
최 연 실\*\*\*\*\*  
Choi, Youn Shil

### ABSTRACT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ild rearing practices of North Korean society were studied with in-depth interviews of twelve adults who had escaped from North Korea since 1990 and with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7 items completed by 158 subjects who had also escaped from North Korea. There are 3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 Monotheism, collectivism, and patriarchalism. Collectivism resulted in collective behavior styles; monotheism made the hero worship of the Kim Il Sung lineage possible, and patriarchalism contributed to boy-preference and to differentiated sex-role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In practice, parents emphasize honesty and loyalty to the Communist Party, and they use praise as verbal reinforcement. Parents also emphasize obedience and control rather than democratic participation.

1) 이 연구는 1998년 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한 부분임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교수 \*\*\*\*\*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I. 문제 제기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탈북자가 늘어나고 금강산 개방 등 북한 사회가 제한적으로 개방되면서 북한과의 교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증가로 점차 남북한 주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분단 후 반세기동안 생활의 이질화를 경험한 까닭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북한 주민의 일반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의 필요는 물론이고, 대인간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양육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는 하나의 전일적 사회이념에 따라서 운영되어 왔으므로 아동의 사회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념의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955년 공산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이야기한 이래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이념이 되었다(민족통일연구원, 1991; 연합통신, 1991, 1995).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는 1960년대 말까지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토대를 두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과 무산 계급독재론,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황장엽, 1979). 그후 주체사상에 입각해 북한의 모든 정책이 실시되었다. 김일성은 사상적 주체, 외교적 주체, 경제적 자립, 군사적 자위를 강조하고 정책을 실시해 왔다.

최근 북한의 가족문화(부남철, 1992; 이문웅, 1996)에 대해 연구되고 있으나 정작 인간 개조론을 내세우고 교육을 통해 주체적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 아동의 양육 과정에 대해서는 단편적 언급이외에, 청소년의 생활(박성희, 1995), 여성의 생활(손봉숙·이영숙·이은숙·김애실, 1991), 생활문화(이기춘 외, 1997, 1998; 이은영 외, 1999)를 다룬 것을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그 실태가 파악되지 못했다. 그나마 북한에서 인쇄된 자료에 근거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북한 아동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근래에 북한의 주체사상 이념의 요소와 내용을 분석한 연구(이순형, 1997)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몇 개의 하위이념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고병철, 1990), 아동 사회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집단주의, 유일사상, 가부장주의의 세 가지 요소가 두드러진 구성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아동 사회화 목적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간 개조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간 개조론은 김일성이 북한 인민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개조를 주장하면서 제기되었다. 우선 주체사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의 집단주의화를 강조해 왔다. 개체는 자유의지를 가진 별개의 존재로 인정하기보다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즉 주체사상에 의하면 개인은 의미가 없으며 집단 속에 소속될 때에만 구성원으로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를 헌법 규범으로서, 혁명전사를 만들기 위해서(김수득, 1970)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교육한다(북한연구소, 1977). 집단주의 교육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획일화하며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의 이념에 순응하고 지도자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한다. 개인의 독자성과 개성은 집단활동을 통해서 소멸되도록 한다. 강력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제도의 경직성이 수반되며 경직된 제도하에서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 그렇지만 강력한 지도체제가 원하는 인

간을 형성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 하위 이념은 유일사상이다. 북한사회에서는 인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당이 위임받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를 실시한다<sup>3)</sup>. 김일성이 주장한 유일사상은 김일성 숭배사상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숭배는 ‘신조화, 신념화, 무조건 찬성’으로 교육된다. 세 번째 하위 이념은 가부장주의이다. 북한공산당은 ‘봉건적 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자료집 제3집, 제4기 제1차 회의)라는 주장과 상충되는 유교적 정치 윤리가 제시되고

유가적 정서에 따른 가족주의적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다(부남철, 1992).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혈연과 친족의식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웅시, 우상화하고 그의 일인체제를 따르도록 아동들을 의식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이념의 주체사상에서 파생된 집단주의, 유일사상과 가부장주의의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 아동의 양육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심층 면접 자료와 경험조사 자료, 두 가지 자료로 분석되었다. 하나는 귀순자의 심층 면접자료에 토대를 두고 구성되었다. 북한에 관한 문헌은 많이 발간되었으나, 연구자들이 그 동안 북한실정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발간한 홍보자료에 근거해 구성된 문헌이 많으므로, 문헌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문헌자료 내용을 탈북자들의 면접자료를 이용해 수정하여 새로 구성했다. 면접대상은 1990년 이후 귀순한 사람 12명(남자 5명, 여자 7명)이다. 그 중 한 사람(K)은 남한에서 월북하여 다시 탈북한 사람이다. 탈북자의 선정과 접촉에는 이들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얻어 공식적으로 진행시켰다. 이들 중 L은

북한 중앙당 최고위 간부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어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되었다. 이들 대상은 199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되었는데, 각 면접대상에 대한 면접시간은 4시간 - 6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 대상 12인의 인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 1) 면접시기

본 연구의 면접은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는 사고방식을 측정하는 가치정향성의 영역은 질문지 조사를 이용하였고, 각 생활양식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직접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는 일종의 질적 사례연구법의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다.

3) 1974년 로동당중앙위원회가 밝힌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보면 유일사상과 개인 숭배가 어느 정도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우러러 모셔야 한다(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3조), 위대한 김일성수령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4조), 위대한 김일성수령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5조)

〈표 1〉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부호 | 성별 | 연령 | 탈북시기     | 탈북전 직업       | 교육 수준   | 탈북전 거주지  |
|----|----|----|----------|--------------|---------|----------|
| A  | 여  | 38 | 1997. 2  | 식료공장 공원      | 중졸      | 함경북도 회령  |
| B  | 여  | 36 | 1997. 2  | 식료 공장 공원     | 중기사과정   | 함경북도 회령  |
| C  | 여  | 52 | 1995. 12 | 간부물자공급소 소장   | 상업전문대학졸 | 함경북도 은성  |
| D  | 여  | 58 | 1995. 3  | 복송재일교포/미용사   | 중졸      | 평안북도 신의주 |
| E  | 남  | 42 | 1995. 2  | 농업연구사        | 농업대학졸   | 양강도 김정숙군 |
| F  | 여  | 38 | 1994. 7  | 재단사          | 고졸      | 자강도 만포시  |
| G  | 남  | 38 | 1994. 5  | 수리관개 / 벌목공   | 관개수리대졸  | 함경북도 함흥  |
| H  | 여  | 50 | 1994. 4  | 정성가내반 노동자    | 고졸      | 함경북도 함흥  |
| I  | 여  | 27 | 1994. 4  | 유치원 교사       | 고졸      | 함경북도 함흥  |
| J  | 남  | 55 | 1986. 11 | 연구원          | 경제학 박사  | 평양       |
| K  | 남  | 56 | 1988     | 중앙당산하 무역회사사장 | 대졸      | 평양       |
| L  | 남  | 76 | 1997     | 중앙당간부        | 대졸      | 평양       |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는 생활문화를 측정하는 조사도구로서, 가치정향성을 측정하는 척도와 각 생활양식의 심층면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치정향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송인숙, 1993; 이순형, 1996; 이순형·이영미, 1997; Triandis, 1995)를 근거로 이념을 조사할 문항을 설정하고, 연구자가 문항을 첨가하여 52개의 문항을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가치정향성 설문은 연구자 6인이 문항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전원 일치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했다. 이 설문은 모두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집합주의 10개 문항(설문문항 11-20), 가족주의 6개 문항(설문문항 21-26), 물질주의 10개 문항(설문문항 1-10)이다.

이 설문을 가지고 1990년 이후 탈북자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의 집합주의,

가족주의, 물질주의 성향 등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치정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들이 북한을 떠난 후의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을 면접하도록 했다.

## 3) 설문조사

### ① 조사대상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북한생활을 체험했던 국내 거주 탈북자 집단이다. 조사대상자 특성의 고른 분포를 위해 연령과 직업, 교육수준, 탈북전 거주지(평양 대(對) 지방) 등을 고려하였으나, 자료의 참신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199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의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탈북자의 선정과 접촉에는 이들

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우편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② 측정도구

이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sup>4)</sup>는 가치 정향성 조사,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가족생활과 아동 양육에 대한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 영역은 양육에 대한 의식과 실제 양육 수행을 측정하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 17개 문항(희망자녀수, 남아선호, 성장후 기대, 인성특성 기대, 부모역할 인지), 자녀양육의 실제 4개 문항, 일반적 자녀양육 3개 문항,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남한과의 차이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③ 자료 수집과 분석

설문조사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 문항 작성 및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조사는 1997년 9-12월에 12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면담을 하고 질문지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탈북자들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협조를 부탁하였다. 다음 단계로 이 담당자에게 질문지를 회신용 봉투와 함께 발송하여 탈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후 탈북자들이 응답을 해서 우편으로 회신

을 하는 형식으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총 20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발송하였으나, 163명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그 중 부실 기재된 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8부의 질문지가 분석되었다.

## ④ 설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38세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약 7:3이며, 탈북 전 직업은 전문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노동계층, 외화벌이꾼으로 북한 거주당시에는 상층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이 탈북한 연도는 94년 이전이 반수에 달하며, 입국한 연도는 97년이 가장 많아 비교적 최근에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탈북 전 가족원수는 3-4명이 가장 많고, 5명 이상이 그 다음으로 평균 4.19명이었다. 탈북 전 가족유형은 핵가족, 부부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본 연구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주된 가족형태가 핵가족(장하진, 1996)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탈북 전 거주지와 출생지는 모두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대학 졸업이상으로 북한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과 가구 월평균 지출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과 지출의 평균 수준을 살펴보면 각각 521원과 640원이었다<sup>5)</sup>.

4) 이기춘 외 6인의 연구(1998)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일부분이다. 이 조사도구는 각 생활영역별로 일상생활 양식에 대해 질문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족생활 양식 23개, 아동생활양식 25개, 소비생활양식 20개 문항, 시간생활양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1992년을 기준으로 한 주요 직종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당·정기관의 부장급이 300-350원 정도이고(내외통신사, 1994; 103), 부부장급의 월 기본생활비가 216.40원 정도이다(서동익, 1995; 279).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주로 9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므로 북한사회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소득과 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동당원이었는데, 앞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직업 수준과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시켜 볼 때, 북한사회에서는 상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시 가족을 동반한 경우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비율이나 동반한 쪽이 약간 더 많았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8)

| 항 목        | 구 분                | 빈도 (%)                | 항 목                    | 구 분              | 빈도 (%)     |
|------------|--------------------|-----------------------|------------------------|------------------|------------|
| 연 령        | 29세 이하             | 30 (22.6)             | 탈북 전 거주지               | 도 시              | 114 (75.5) |
|            | 30 - 39세           | 55 (41.4)             |                        | 농 촌              | 37 (24.5)  |
|            | 40 - 49세           | 26 (19.5)             | 소계: 151                |                  |            |
|            | 50세 이상             | 22 (16.5)             | 출생지                    | 도 시              | 91 (61.5)  |
|            | 평균: 38.0 표준편차: .94 | 소계: 133               |                        | 농 촌              | 57 (38.5)  |
| 성 별        | 남                  | 107 (76.4)            | 소계: 148                |                  |            |
|            | 여                  | 33 (23.6)             | 교 육 수 준                | 고등중학교 중등반 졸      | 6 (4.5)    |
| 소계: 140    |                    |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           |                        | 23 (17.3)        |            |
| 탈북 전 직 업   | 노동계층               | 30 (23.3)             |                        | 교원대학/고등전문학교 졸    | 29 (21.8)  |
|            | 사무원 등 근로인텔리, 전문직   | 40 (31.0)             |                        | 대학(종합, 단과, 사범) 졸 | 75 (56.4)  |
|            | 학생, 유학생            | 8 (6.2)               | 소계: 133                |                  |            |
|            | 개인농어민, 자영업, 운전기사   | 7 (5.4)               |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           | 99원 이하           | 28 (22.0)  |
|            | 군인, 당간부, 외화벌이꾼     | 25 (19.4)             |                        | 100 - 199원       | 39 (30.7)  |
|            | 주부 및 무직            | 8 (6.2)               |                        | 200 - 299원       | 27 (21.3)  |
| 기 타        | 7 (8.5)            | 300 - 499원            |                        | 11 (8.7)         |            |
| 소계: 129    |                    | 500원 이상               |                        | 22 (17.3)        |            |
| 탈 북 연 도    | 94년 이전             | 74 (48.4)             | 평균: 521.0 표준편차: 107.86 |                  |            |
|            | 95, 96년            | 38 (24.8)             | 소계: 127                |                  |            |
|            | 97년                | 41 (26.8)             | 가구의 월평균 지 출            | 99원 이하           | 23 (25.3)  |
| 소계: 153    |                    | 100 - 199원            |                        | 20 (22.0)        |            |
| 입 국 연 도    | 94년 이전             | 35 (22.7)             |                        | 200 - 299원       | 11 (12.1)  |
|            | 95, 96년            | 53 (34.4)             |                        | 300 - 499원       | 10 (11.0)  |
|            | 97년                | 66 (42.9)             |                        | 500원 이상          | 27 (29.7)  |
| 소계: 154    |                    | 평균: 640.0 표준편차: 119.8 |                        | 소계: 91           |            |
| 탈북 전 가족원 수 | 2명 이하              | 17 (11.6)             | 가입한 조 직                | 노동당              | 67 (44.7)  |
|            | 3 - 4명             | 72 (49.3)             |                        | 사로청              | 56 (37.3)  |
|            | 5명 이상              | 57 (39.0)             |                        | 직업총동맹            | 15 (10.0)  |
|            | 평균: 4.19 표준편차: .13 |                       |                        | 소계: 146          | 농업근로자 동맹   |
| 탈북 전 가족유형  | 핵가족, 부부가족          | 105 (72.4)            |                        | 여성동맹             | 10 (6.7)   |
|            | 직계가족, 확대가족         | 30 (20.7)             | 소계: 150                |                  |            |
|            | 단독가족               | 7 (4.8)               | 동반가족 여부                | 있 다              | 63 (52.9)  |
| 소계: 145    |                    | 없 다                   |                        | 56 (47.1)        |            |
|            |                    |                       |                        | 소계: 119          |            |

### Ⅲ. 연구 결과

#### 1. 북한의 이념과 아동 양육

북한에서 집단주의, 유일사상과 가부장주의가 아동의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북한 주민의 응답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남아선호 사상이다.

탈북자들의 설문 조사한 바를 통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다. 딸이 두 명 있을 때에도 56%가 아들을 더 낳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아 선호의 이유로는 대부분 승계개념(75.2%)을 지적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10.5%) 또는 부모의 노후 보장(6.7%)의 이유도 있다.

남아선호사상은 아들과 딸에 대한 성장 기대에서도 나타난다. 북한 부모들은 아들에게는 당 간부(25.5%). 그리고 의사, 과학자, 기술자 등의 전문가(15.3%)와 군인(10.9%)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펼 수 있는 직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출세를 기대한다. 그러나 딸에게는 시집을 잘 가고 여성다운 여성(50.0%), 전문가 및 기술자(14.6%), 예술인(14.6%)을 기대한다.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가 매우 다른 것은 아직도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부모들은 아들은 유능하여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며, 딸은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의 지위에 동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일사상에 의한 아동 양육은 곧 인민학교 아동에 대한 기대에서 잘 밝혀졌다. 인민학교 아동의 과업으로 공부하기(72.8%), 아버지 수령에게 충성하기(14.0%), 선생님 눈에 들기(10.3%), 소년단에 충성하기(3.7%)를 중요하게 꼽았다. 소년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는 실력을 갖추

는 것과 당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학교 학생에게 공부 다음으로 충성심을 중시하고 있다. 인민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간부가 되는 조건으로 중시되는 것은 가족의 배경과 성분(47.3%)이다. 그리고 이에 비슷하게 공부를 잘 하여야 한다(43.3%). 드물기는 하지만 완력(3.9%)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다. 이 항목들은 성품(1.6%), 당에 대한 충성심(1.6%), 예절, 옷차림, 외모(0.8%), 뇌물(0.8%)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가부장주의는 부모가 자녀의 인성 특성을 달리 기대하도록 한다. 부모들이 자녀의 성격 중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지적한 것은 불순종(53.3%), 이기심(25.8%)과 무책임(15.0%)이었다. 무책임과 별도로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5.8%로 나타났다. 부정적 가치로 지적된 것들은 모두 집단주의적 가치, 가족주의적 가치에 상치되는 인성 특성이다. 이중 뒷사람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나쁜 행동으로 대부분이 지적했는데 이는 북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 방법으로 위계질서를 강력히 고수하며 일찍이 가정에서 아동 사회화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아동 사회화의 방법은 곧 그 사회의 통치 전략과 부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식은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총체적으로 물었을 때,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양육방식(35.0%),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방식(29.9%)을 주로 사용했다. 이 두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64.9%로 주된 양육방식을 대별한다고 하겠다. 약 1/4의 부모들이 민주적 양육방식(24.8%)을 사용하고 있으며, 1/10의 부모

들이 방관적 양육방식(10.3%)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부모의 훈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충성심 교육 여부

부모가 당에 대해 충성하라고 교육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에 해당하는 대부분(73.9%)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당에 충성하라고 교육했다고 응답했다.

### 2) 문제 해결 방법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첫째가 따져서 사리를 밝히는 방법(47.4%),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20.0%), 회피하여 문제삼지 않는 방법(17.0%),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는 방법(15.6%)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어려운 문제라도 사리를 따져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앞서 아동에게 정직을 압도적으로 기대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양육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조용히 해결하거나 회피하도록 하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하라는 것 등 비합리적 문제 해결을 지도한 것은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물었을 때 문제 해결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도록 응답한 경우(50.4%),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경우(41.9%)가 각각 절반에 가깝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목표 전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4.7%)도 보고되었다.

### 3) 자녀의 도벽과 거짓말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거짓말을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다. 이들은 훔

친 물건을 되돌려 주게 하고(28.3%), 꾸짖거나(41.5%), 욕하고(17.0%), 때리는 경우(10.4%)가 많았다. 무관심한 경우(2.8%)는 드물었다. 이 응답으로 도벽과 거짓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욕설과 구타 등의 교육 방법이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보상방법

자녀가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방법을 사용하는가를 질문했다. 말로 그 행동을 칭찬하거나(64.3%), 어깨를 두드리거나 안아준다거나(27.8%),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3.2%), 돈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0.8%) 등으로 거의 모든 부모들이 그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에 무관심한 경우는 말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4.0%)에 불과하다. 그리고 9/10 이상의 부모가 말과 행동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드러나 물질이 부족한 북한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오히려 바람직한 보상방법을 사용해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자녀의 독립

청소년 자녀의 독립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혼인 후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1/3이 중졸 후(33.6%)로 답했다. 20세 이후로 응답한 경우는 6.9%이었다. 전통적으로 혼인을 성년의 시기로 개념화해 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 2. 자녀 양육의 실제

탈북자들에게 실제로 북한에서 아동 출산과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1) 출산

출산상황을 장소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 입원 출산(70.4%), 산과 보조로 가정출산(12.8%), 가정 출산(15.2%)이다. 대다수가 병원에서 출산하지만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양육자

자녀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68.0%)이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아동의 주 양육자는 할머니가 된다. 양육자는 친할머니(12.3%)와 외할머니(13.1%)로 친가와 처가에서 양육 부담을 비슷하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탁아소 경험

자녀를 탁아소에 맡긴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했다. 탁아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3/4(75.2%)에 해당된다. 직장에 나가는 여성은 거의 탁아소에 자녀를 맡겼다고 응답했다.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탁아소에 자녀를 맡길 수 없어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것으로 응답했다. 한 응답자는 평양시 대동강 구역 대동강 탁아소에 아침 7시 반에 아이를 맡겼다가 저녁 8시 경에 찾아왔다고 응답했다. 다른 응답자는 형제 7명이 모두 탁아소에서 성장했다고 응답했다.

탁아소에 자녀를 보낸 연령은 주로 4, 5, 6세이다. 응답자들은 4세(10.6%), 5세(48.9%), 6세(26.6%)에 탁아소에 보냈다고 한다. 자녀를 탁아소에 보낸 기간은 2년(53.2%), 1년(18.1%)과 3년(19.1%)이다.

### 4) 보육원

북한에서 고아를 국가시설에서 양육하는 보육원에 아동을 보내는지를 조사했다. 응답자의

약 1/3이상이 주위에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것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친이 사고로 죽은 후 계모가 아이를 애육원과 보육원에 보내는 것을 보았다(K)고 했다. 심지어 생활이 어려워 몰래 보육원이나 개인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계모가 들어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었고 어머니가 정신질환자이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때로 미혼모의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있다 한다. 이혼한 가정의 아동이 보육원에 맡겨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고 했다.

북한에서 이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지기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혼이 자유롭다는 인식과는 달리, 북한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이거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같은 이혼에 대한 의식은 특히 여성에게 더 큰 제약으로 등장한다. 물론 북한에서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혼비율이 남한 사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다(통계청, 1996).

이혼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 양육권이다. 이혼시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그러나 북한은 부권(父權)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시 아버지 쪽에서 자녀를 맡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피면접자는 탈북 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친권을 갖게 되므로 며느리가 사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D씨). 한편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북한에서 보편적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규정한 법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지배하는 관습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 5) 청소년들의 성교육

청소년의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1/3 정도가 청소년들에 대한 성 교육이 전혀 없다(32.8%)고 했다. 북한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성교육 자료의 원천을 조사했다. 청소년의 성교육 정보원은 친구(39.5%), 책(15.1%), 교사(9.2%) 부모(3.4%)로 나타났다.

## 3. 아동 양육과 관련 변수

### 1) 희망 자녀수와 관련 변수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희망 자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7.481$ ,  $df=4$ ,  $p<.01$ ). 자녀를 한 명 원하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68.6%, 자녀를 두명 원하는 사람은 31.4%에 해당된다. 그중에 49세 미만의 사람들은 대부분 1명의 자녀를 원하는데 비해서 50세 이상의 부모들은 2명의 자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아들의 수도 역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4.531$ ,  $df=4$ ,  $p<.01$ ). 49세 이상의 응답자는 아들 2명을 원하나, 48세 미만의 응답자는 아들 1명만을 두기를 원했다.

아들의 수와 반대로 희망 여아의 수도 응답자의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507$ ,  $df=4$ ,  $p<.05$ ). 49세 미만의 연령에서만 딸이 없거나 한 명을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49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딸 2명을 원하는 사람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젊은 세대에서는 자녀를 1명 원하므로 이들은 대개 아들 한 명을 원하는데 비해서 오십 대 응답자들은 자녀수를 2인 이상 원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딸을 두 명 두어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희망 자녀수는 응답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chi^2=11.409$ ,  $df=3$ ,  $p<.01$ ). 고등중, 중등반 졸업자의 경우에 2명 이하의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적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 중간 정도의 교육 수준에서는 자녀를 2명 미만으로 원하나 교원대 이상의 고급 학력의 응답자는 3명 이상의

〈표 3〉 연령에 따른 희망 자녀의 수 빈도

| 구 분 |      | 25세이하 | 26 - 30세 | 31 - 38세 | 39 - 48세 | 49세이상 | 합계 (%)    |
|-----|------|-------|----------|----------|----------|-------|-----------|
| 자녀수 | 1명   | 6     | 17       | 31       | 20       | 9     | 83(68.6)  |
|     | 2명   | 4     | 3        | 9        | 6        | 16    | 38(31.4)  |
|     | 계    | 10    | 20       | 40       | 26       | 26    | 100(100)  |
| 아들수 | 1명   | 6     | 15       | 27       | 19       | 9     | 76(66.1)  |
|     | 2명   | 4     | 3        | 10       | 6        | 16    | 39(33.9)  |
|     | 계    | 10    | 18       | 37       | 25       | 25    | 115(100)  |
| 딸 수 | 0-1명 | 9     | 18       | 34       | 25       | 19    | 105(91.3) |
|     | 2명   | 1     | 1        | 2        | 0        | 6     | 10(8.7)   |
|     | 계    | 10    | 19       | 36       | 25       | 25    | 115(100)  |

자녀를 원했다. 학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응답자들이 자녀를 3명 이상 원했다.

흥미로운 것은 탈북 전 가족 유형에 따라 원하는 자녀수와 희망하는 자녀의 수가 다르다는 것( $\chi^2=8.597$ ,  $df=2$ ,  $p<.05$ )이다. 탈북 전 가족이 핵가족 부부형에 속하는 경우는 희망 자녀수가 대부분 1, 2명이고, 직계나 확대 가족형에 속하는 경우는 1, 2명과 3명 이상이 비슷하게 많지만, 단독가구 형태의 가족인 경우는 1, 2명에만 국한되어 있다. 가족 구조는 희망 아들 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탈북 전 가족 유형에 따라서 희망 아들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chi^2=9.128$ ,  $df=2$ ,  $p<.01$ ). 탈북 전 핵가족 부부유형에 속했던 응답자는 희망 자녀수가 없거나 1명이고 직계 확대 가족의 유형에 속했던 응답자는 0, 1명, 2명 이상의 자녀를 고루 원한다. 그러나 단독 가구에 속했던 응답자는 자녀가 없거나 1명만을 원한다.

2) 남아 선호와 관련 변수

탈북자들에게 딸만 두 명 있을 때 아들을 더

낳아야 하는가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성별에 따라 그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chi^2=5.509$ ,  $df=1$ ,  $p<.05$ ). 즉 남자 응답자들은 여자 응답자보다 남아 선호의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여자 응답자는 남자응답자보다 남아 선호의 이유를 대를 잇기 때문이라고 더 제시했다.

〈표 5〉 성별 남아 선호의 이유 빈도

| 이유      | 남  | 여  | 계        |
|---------|----|----|----------|
| 대(代) 잇기 | 52 | 19 | 71(74.7) |
| 도구적 이유  | 23 | 1  | 24(25.3) |
| 계       | 75 | 20 | 95(100)  |

3) 아동의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 변수

응답자의 북한에서의 직업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법의 차이를 검증한 바(Pearson's  $\chi^2=33.795$ ,  $df=21$ ,  $p<.05$ )에 따르면 사무원, 전문직은 회피 전략, 조용히 해결, 사리 밝혀 해결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데 이러한 전략의 선택에는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희망 자녀수 빈도

| 구 분 |       | 고등중/중등반 | 고등중/고등반 | 교원대/고등전문 | 대학 이상 | 계         |
|-----|-------|---------|---------|----------|-------|-----------|
| 자녀수 | 1, 2명 | 1       | 17      | 18       | 47    | 83(68.6)  |
|     | 3명이상  | 5       | 2       | 9        | 22    | 38(31.4)  |
|     | 계     | 6       | 19      | 27       | 69    | 121(100)  |
| 아들수 | 1, 2명 | 0       | 15      | 19       | 42    | 76(66.1)  |
|     | 3명이상  | 5       | 2       | 8        | 24    | 39(33.9)  |
|     | 계     | 5       | 17      | 27       | 66    | 115(100)  |
| 딸수  | 1, 2명 | 2       | 3       | 25       | 62    | 105(91.3) |
|     | 3명이상  | 3       | 0       | 2        | 5     | 10(8.7)   |
|     | 계     | 5       | 16      | 27       | 67    | 115(100)  |

〈표 6〉 응답자의 연령별 아동의 문제 해결 방법 빈도

| 문항          | 25세이하 | 26-30세 | 31-38세 | 39-48세 | 49세 이상 | 계   |
|-------------|-------|--------|--------|--------|--------|-----|
| 어떻게라도 해결    | 5     | 10     | 16     | 8      | 16     | 55  |
| 다른이에게 미룸    | 3     | 0      | 0      | 0      | 1      | 4   |
| 위사람에게 순종    | 1     | 11     | 16     | 12     | 6      | 46  |
| 다른 일로 목표 전환 | 1     | 2      | 1      | 1      | 1      | 6   |
| 계           | 10    | 23     | 33     | 21     | 24     | 111 |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방법이 본인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chi^2 = 31.387$ ,  $df=12$ ,  $p<.01$ )가 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49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48세 이하의 대상들은 위 사람에게 순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고 응답했다. 장년층의 사람들은 보다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비해서 중년층 이하의 사람들은 의존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북한 사회의 교육 효과가 장년층보다는 중년층 이하에서 더 나타난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 4) 인민학교 간부의 조건과 관련 변수

인민학교 간부의 조건을 표현하는데 성별 차이가 있었다( $\chi^2 = 7.788$ ,  $df=2$ ,  $p<.05$ ). 남자 응답자는 인민학교 간부의 조건으로 공부를 가족 배경보다 더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했고 가족 배경을 비롯해 기타 요인을 더 중시한데 반해서, 여자 응답자는 공부를 다소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가족 배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인민학교 간부의 조건 제시에서 탈북 전 가족유형이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 핵가족유형에 속한 응답자는 공부를 가족배경보다 더 중시한데 반해서, 직계 확대 가족유형에 속한 응답자는 공부나 가

족배경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했고 공부보다는 가족배경을 다소 더 중시했다.

#### 5) 당에 대한 충성 교육과 관련 변수

충성에 대한 교육에는 북한에서의 거주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 $\chi^2 = 8.267$ ,  $df=3$ ,  $p<.05$ )가 있었다. 도시에서 생활했던 응답자들의 3/4은 충성을 교육했고 1/4은 충성 교육을 하지 않은 반면에, 농촌에 거주했던 응답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충성을 가르쳤다. 말하자면 도시 거주자 탈북자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충성을 교육한 사람들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농촌 거주 탈북자들에게서는 거부한 사람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 7〉 거주지에 따른 충성 교육 빈도

| 문항        | 도시  | 농촌 | 계   |
|-----------|-----|----|-----|
| 적극적 충성 교육 | 71  | 29 | 100 |
| 소극적 충성 교육 | 6   | 4  | 10  |
| 무관한 생활 교육 | 1   | 0  | 1   |
| 적극적 거부 교육 | 24  | 1  | 25  |
| 계         | 102 | 34 | 136 |

#### 6) 양육 방식과 관련 변수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자녀 양육 방법에 유

의한 차이( $\chi^2 = 24.504$ ,  $df=12$ ,  $p<.05$ )가 있었다. 방관적 양육방식은 7(7.1%), 통제적 양육방식은 32(32.3%), 순종적 양육방식은 32(32.3%)이고 민주적 양육방식은 28(28.3%)이다. 통계형, 순종형 양육 방식을 취한 부모가 2/3이고 민주형의 양육 방식은 1/3에 그친 이러한 분포는 이념의 집단주의 이념과 동일하다. 이러한 양육방식을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25세 이하의 집단에서는 세 양육방식간에 별 차이가 없지만 26세부터 30세 응답자는 통제적, 순종적 양육방식을, 31세부터 38세 응답자는 순종적, 민주적 양육방식을, 39세부터 48세 응답자는 통제적 양육방식을, 49세 이상은 민주적 양육방식을 택했다. 이 경향은 자녀의 연령과 맞물린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7) 부모의 역할과 관련 변인

부모 역할 응답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르다( $\chi^2 = 32.163$ ,  $df=16$ ,  $p<.01$ ). 잘 먹는 것, 화목한 생활, 생활지도, 공부지도에 각각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25세 이하의 응답자는 생활지도에, 26세부터 30세 응답자는 잘 먹는 것, 31세부터 38세 응답자는 화목한 생활에, 39세부터 48세 응답자는 잘 먹는 것부터 화목한 생활에, 49세 응답자는 생활지도와 화목한 생활을 강조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부모 역할로 중시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출생연도에 따른 효과라고만 추정할 뿐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그 연도별로 북한 주민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8〉 응답자의 연령별 양육 방식 빈도

| 양 육 방 법 | 25세이하 | 26 - 30세 | 31 - 38세 | 39 - 48세 | 49세이상 | 계  |
|---------|-------|----------|----------|----------|-------|----|
| 방관적 방식  | 3     | 1        | 2        | 0        | 1     | 7  |
| 통제적 방식  | 4     | 6        | 6        | 10       | 6     | 32 |
| 순종적 방식  | 3     | 7        | 13       | 4        | 5     | 32 |
| 민주적 방식  | 0     | 4        | 13       | 2        | 9     | 28 |
| 계       | 10    | 18       | 34       | 16       | 21    | 99 |

〈표 9〉 응답자의 연령별 부모 역할 빈도

| 항 목    | 25세이하 | 26 - 30세 | 31 - 38세 | 39 - 48세 | 49세이상 | 계   |
|--------|-------|----------|----------|----------|-------|-----|
| 잘 먹는 것 | 0     | 6        | 3        | 7        | 1     | 17  |
| 화목한 생활 | 2     | 3        | 13       | 8        | 8     | 34  |
| 생활지도   | 4     | 1        | 4        | 5        | 10    | 24  |
| 공부지도   | 2     | 3        | 2        | 1        | 4     | 12  |
| 계      | 8     | 17       | 31       | 24       | 25    | 105 |

## 8) 출산과 관련 변수

자녀 출산 장소는 연령에 따라 달랐다( $\chi^2=31.901$ ,  $df=12$ ,  $p<.01$ ). 연령이 49세 이후인 경우에 가정 출산과 산파보조 가정출산이 많았다. 48세 미만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 출산이 많았는데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가정 출산이 많았다. 1995년 이후 배급이 끊기고 최근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져 병원 사정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탈북 전 가족 유형에 따라 자녀의 출산 장소가 다르다( $\chi^2=15.834$ ,  $df=6$ ,  $p<.05$ ). 단독가구는 병원 출산뿐인데 핵가족 부부유형과 직계 확대 가족유형에는 가정 출산이 많은데 특히 직계확대 가족 유형에 가정출산이 더 빈번했다.

## 4. 남, 북한의 자녀 양육에 비교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남한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보고 북한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비교했다. 응답자들은 우선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

하여 남한의 아동들은 북한의 아동들보다 좋은 음식과 간식을 섭취하며, 부모의 관심 속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한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높은 관심과 열성이 있다. 남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은 때로 지나친 것으로 평가되는데, 학원을 여러 곳에 보내는 등 사교육비가 과다하고, 과외학습에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말했다. 남한의 부모들이 북한의 부모들보다 아동에게 친절하고 어루만지는 등 부드럽게 대하며, 욕설을 하지 않는 등 자식을 귀하고 곱게 키우며, 예절 교육을 잘 시키는 등 생활에 짜든 북한 부모들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남한 부모들은 자식을 과잉 보호하고, 모유 수유보다 우유 수유를 하며, 의존성을 키우는 등 자녀 양육과 교육에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아동들은 부모가 남한의 부모들보다 잘못해 주어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데 남한의 아동들은 과잉보호하여 키워서 오히려 자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갈파했다.

## IV. 맺음말

한반도가 분단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이 다른 정치 체제로 살아오면서 그 사회이념의 차이로 인해 엄청난 이질화를 경험해 왔다. 특히 폐쇄된 사회인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중에서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폐쇄된 사회로 유지해 왔으므로 북한의 아동 생활과 가정에서의 양육 등 아동 사회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는 중에도 어떠한 정보도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에 북한 사회에 식량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탈북자가 증가되는 와중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이 접촉하고 주민들이 오고가게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 통일후의 사태에서 보듯이 상호간의 불신과 심리적 갈등이다. 불신은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므로,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동의 생활이나 양육 실제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특성을 문헌 고찰하여 탈북자들을 심층 면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화와 관련해 해석했으며 그를 토대로 설문을 구성하여 탈북자 158명에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밝혔다. 주체사상을 집단주의, 유일사상, 가부장주의로 분류한 바(이순형, 1997)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아동 교육 방법을 고찰하였으며 실제로 아동 양육에서 그 세 가지 사상 교육이 실시됨을 밝혔다.

집단주의는 아동에게 집단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요구한다. 아동은 7살부터 평생 집단에 소속되어 생활하며, 60-65세 이후가 되어야 집단 소속에서 해방된다. 생활의 모든 측면은 집단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보육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가정의 양육의 변수를 통제하고 집단교육으로 북한 사회가 원하는 집단주의적 인물로 일찍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일사상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 교육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탁아소에 맡겨져서 양육되는데 부모의 이름을 알기 전에 아버지 수령의 이름을 알게 되고, 많은 교육 활동이 김부자의 일대기와 관련해 이루어진다. 인민학교부터 교과과정에 그 일대기가 필수 과목으로 학습하게 된다.

유일사상에 의한 아동 양육은 인민학교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서도 잘 밝혀졌다. 인민학교 아동의 과업으로 공부하기 다음으로 아버지 수령에게 충성하기를 중요하게 꼽았다. 능력만큼 당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부장주의에 의한 것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김일성 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면담한 탈북자들은 김일성부자의 출생연도, 출생지, 가계(家系) 등에 대해서 연도와 지역을 암기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민주적 사회를 경험하지 않고 해방후 곧 공산사회에 진입한 탓으로 주민들이 김부자를 조상 모시듯 하는 것은 가부장주의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론과 본질이 다른 주체사상으로 독자적 인간상을 형성화하고 어린 아동을 그 틀에 맞추어 사회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가정에서 아동 양육 수행에서도 나타나서 부모가 자녀를 집단주의적, 가부장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출산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대를 잇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남한과 다르지 않다. 북한의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보상할 때 덜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점은 바람직하다. 물질이 풍부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양육의 소박한 일면을 보는 듯하다. 자녀의 거짓말이나 도벽 등 잘못을 꾸짖을 때 27% 정도에서 체벌이나 욕설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엄히 교육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가정에서의 체벌이 빈번하다는 것은 사회 폭력의 만연됨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의 곳곳에 비민주적, 일방적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가정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절반의 부모는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방식을 취하라고 했고 절반의 부모는 어떠한 방법으로도(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합리적 논의나 설득을 연습하지 않고 성장한 세대와의 대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을 보면 2/3의 부모가 통제형, 순종형의 양육 방식을 취했고 1/3의 부모만이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한데 그쳤다. 이러한 분포는 사회 이념의 집단주의적 특성에 비추어

불 때 어찌면 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시와 복종의 관계 속에 성장한 사람들은 수동적 존재로 체제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조성될 것이다. 개인의 자율적 의지를 부정하고 사고의 획일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학습된 무력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서 창의성과 사고의 융통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이순형, 1997).

북한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적응의 문제를 경험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적

응 문제는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1997). 남북이 접촉하고 왕래가 자유로워진다고 해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과 대처 행동에 대해 이해가 쌓이고 상호 생활방식의 격차를 점차 좁혀가지 않는 이상 오해와 갈등이 유발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민간인간에 접촉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병철. (1990).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분석.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 김수득. (1970).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와 그 수행: 방도에 관한 그 지침. 노동신문, 1970년 5월 16일자.
- 민족통일연구원. (1991). 북한 체제의 실상과 변화 전망.
- 박성희. (1995). 북한청소년의 생활. 공보처.
- 부남철. (1992).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가족 윤리 법을 중심으로. 통일원,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 북한의 경제·사회·사법제도 분야. 4, 269-335.
- 북한연구소. (1977). 북한교육론.
- 연합통신. (1991) 북: 행복도 강요되는 땅.
- 연합통신. (1995). 북한 50년.
- 손봉숙·이경숙·이은숙·김애실. (1991).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1-36.
- 송인숙. (1993). 소비자의 구매중독 성향 및 영향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박영숙·최연실. (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대한가정학회지, 35권, 6호, 289-315.
-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박영숙·최연실. (1998).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 북한의 가족·아동·소비·시간 생활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권, 11호, 231-250.
- 이문웅. (1996).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전통 유교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이 사회와 문화. 경남대학교출판부.
- 이순형. (1996). 가족주의와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 가치간의 관계 - 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 한국사회학회지, 제30권, 가을호, 545-573.
- 이순형. (1997). 북한의 주체사상과 아동 사회화. 1997년도 가족관련단체협의회 주최 <남북한 가족의 동질성 회복>에서 주제 발표(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
- 이순형·이영미. (1996).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 만족의 관계: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4권, 제1호, 1-24.
- 이은영·이기춘·이기영·이순형·김대년·박영숙·최연실. (1999).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

- 합(Ⅲ) - 북한의 의식주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호, 15-28
- 장하진. (1996). 남북한의 가족제도 및 여성의 역할.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경  
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전우택 · 민성길 · 이만홍 · 이은설. (1997). 북한 탈북  
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  
의학, 36의 1호, 146-162.
- 황장엽. (1979).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 근로자, 4월호.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an Francisco: West View Press.